

러 핵위협에 北 전략도발 근접 긴박해진 美, 고강도 대응 예고

北 IRBM 발사 3시간만에 성명...韓日과 외교·안보채널 즉각 가동 전략자산 전개, 양자·다자제재 추진 전방...중·러에도 압박 강화

미국은 4일(현지시간)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대해 고강도 대응을 예고하면서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러시아가 핵 위협을 계속하는 가운데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북한이 일본 상공을 넘어가는 탄도미사일 발사로 도발 수위를 전략 도발에 근접한 수위까지 끌어올리자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3시간여 뒤인 전날 오후 10시 50분께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무모하고 위험한 결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북한이 지난 9월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잇따라 도발을 감행하는 도발 사이클로 들어간 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언론의 질의에 답하는 형식이었었다.

특히 미국은 NSC 국가안보보좌관 채널은 물론 외교장관·국방장관 등 외교·안보라인을 모두 가동해서 한국, 일본 등과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미국은 또 북한이 도발한 지 10시간 만에 주한 미공군이 한국 공군과 함께 전투기를 동원해서 공동 합동작전(JDAM)을 투하하는 정밀폭격 훈련을 실시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일차적으로 대응했다. 아울러 일본에 주둔하는 미 해병대는 일본 항공자위대와도 전투기를 동원해 동해 상에서 연합훈련을 했다.

북한의 이번 긴박한 대응은 북한의 이번 도발이 이전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한미 연합훈련이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비무장지대(DMZ) 방문 등에 대한 반발성이었다면, 이번 행동은 전략 도발 성격이 큰 것으로 미국은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30일 이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IRBM을 발사한데다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열도 상공을 넘어서 비행한 것은 2017년 9월 이후 5년 만이기 때문이다.

또 이번에 발사한 IRBM을 통해 북한은 태평양에 있는 미군의 요충지인 괌을 타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했다.

나아가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끝낸 상태라는 점도 미국의 경각심을 높이는 요소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전날 화상 세미나에서 "북한은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으며 정치적 결정만 남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핵실험 등 전략 도발을 차단하는데 대응을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추가 핵실험을 통한 북한의 핵위협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위협과 맞물려 있어서 미국은 이런 국제 정세의 함의까지 고려해서 대응 수위와 규모를 정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칫하면 러시아와 북한의 핵 위협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측면에서 미국은 한반도 및 일본에 전략 자산을 전개해 북한에 강도높은 경고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은 북한이 반복적으로 도발하자 2017년 8월 이른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장거리 폭격기 B-1B '랜서'와 함께 최신에 스텔스 전투기 F-35B를 처음으로 동시에 한반도 상공에 전개하기도 했다.

미국은 동시에 안보리 차원에서의 대응도 추진, 국제사회의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토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변수다.

앞서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에 대응해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하는 내용의 결의를 추진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불발된 바 있다.

미국은 당시에 중국, 러시아의 반대가 예상됐으나 제재 불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결의를 추진한 만큼 이번에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재차 불발될 경우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는 만큼 형식은 달리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은 또 동맹국과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인물 및 기관에 대한 양자 제재를 추가로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5월에도 안보리 제재가 불발되자마자 바로 독자 제재를 발표했다.

아울러 국내적으로 11월 중간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점증적인 도발이 중간선거에 미칠 파장까지 고려해 대응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핀란드서 철거되는 마지막 레닌 흉상
핀란드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블라디미르 레닌 흉상이 4일(현지시간) 쿠틀라 시내 광장에서 철거되고 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핀란드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신청을 하며 '탈중립'을 선언한데다 국민들의 반러 정서가 강해진 영향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머스크, 원래대로 440억달러에 트위터 인수

인수포기 선언 3개월 만에 번복

트위터 인수 계약 파기를 선언했던 테슬라 최고 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이 계약을 다시 원래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소셜미디어 업체 트위터는 4일(현지시간) 머스크가 이런 내용의 제안을 해왔다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고했다.

공시에 따르면 머스크는 트위터에 보낸 서한에서 인수 계약 파기를 둘러싼 소송 중단을 요구하면서 440억 달러(62조80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트위터는 별도 성명에서 머스크의 소송 중단 요구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주당 54.20 달러라는 원래 인수 가격에 따라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7월 인수 계약 파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했으나 이번 제안으로 3개월 만에 다시 자신의 의사 결정을 번복했다.

이번 소식은 머스크와 트위터의 법정 싸움을 2주일 앞둔 시점에서 나왔다.

머스크는 지난 4월 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사들이기로 합의했으나, 석 달 뒤인 7월 8일 트위터가 가짜 계정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불연 계약을 파기했다. 이에 트위터는 계약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소송을 델라웨어주 형평법 법원에 제기했고, 법원은 이달 17일부터 닷새간 관련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머스크 측 변호인단은 전날 트위터와 법원에 인수 재추진 의사를 전달했고 재판 일정 연기와 더불어 트위터의 소송 중단을 요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머스크와 트위터가 예상치 못한 반전을 통해 이판사판식의 법정 싸움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트위터가 머스크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양측은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시카고, 세계 여행객이 끊은 美 최고 대도시 6년 연속 1위

미국 시카고가 6년 연속 '세계 여행객들이 선정한 미국 최고의 대도시' 자리를 지켰다.

시카고 관광청은 여행전문잡지 '콘데나스트 트래블러'가 발표한 '2022 리더스 초이스 어워드' '미국 최고의 대도시' 부문에서 시카고가 2017년 이후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콘데나스트 트래블러는 "24만여 독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면서 '리더스 초이스 어워드' 35년 역사 한 도시가 연속 3회 이상 최고 도시 1위에 오른 사례는 시카고 외에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카고는 인상깊은 건축물들과 일류 박물관, 특별 레스토랑, 셀 수 없이 많은 수제맥주집, 세계적 수준의 엔터테인먼트 시설 등으로 잘 알려져 있다"며 "시카고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들(Must Dos)을 모두 경험하려면 여러 차례 반복 방문해야만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허리케인 '이언'으로 파괴된 플로리다 해변
4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어나 해변에 위치한 식당, 상점 등의 건물들이 허리케인 '이언'(Ian)으로 파괴된 모습. CNN 방송은 '이언'의 영향으로 플로리다에서만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서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중국 압박에 대만인의 대중 신뢰도 '최저'

미국의 신뢰도는 중간 수준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대만인들은 미국에 대해선 중간 수준의 신뢰도를, 중국에 대해선 최저 수준의 신뢰도를 각각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만의 타이완뉴스는 5일 대만 야당인 국민당 계열 단체인 계사민본기금회(啓思民本基金會)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응답자들의 신뢰도를 점수로 매긴 결과 미국과 중국에 대해 각각 평균 5.55 점과 평균 2.82점을 부여했다고 보도했다.

응답자들에게 최저 1점에서 최고 10점의 점수를 매기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미국의 신뢰도 평균 점수 5.55점은 중간 수준, 중국의 신뢰도 평균 점수 2.82점은 최저 수준을 뜻한다고 계사민본기금

회 측은 설명했다.

"미국 의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대만정책법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들의 77%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앞서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지난 8월 대만을 한국과 같은 수준인 비(非) 나토(NATO)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향후 4년간 45억 달러(약 6조 4000억 원) 규모의 안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만정책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미국과 중국 간 긴장 확대 시 대만의 선택"을 물은 결과 39.5%는 "미국과 더 가까워져야 한다"라고 답했으며, 46.8%는 "미국 중국과 등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중국과 더 가까워져야 한다"라는 응답자는 7.5%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튼튼한 지킴이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